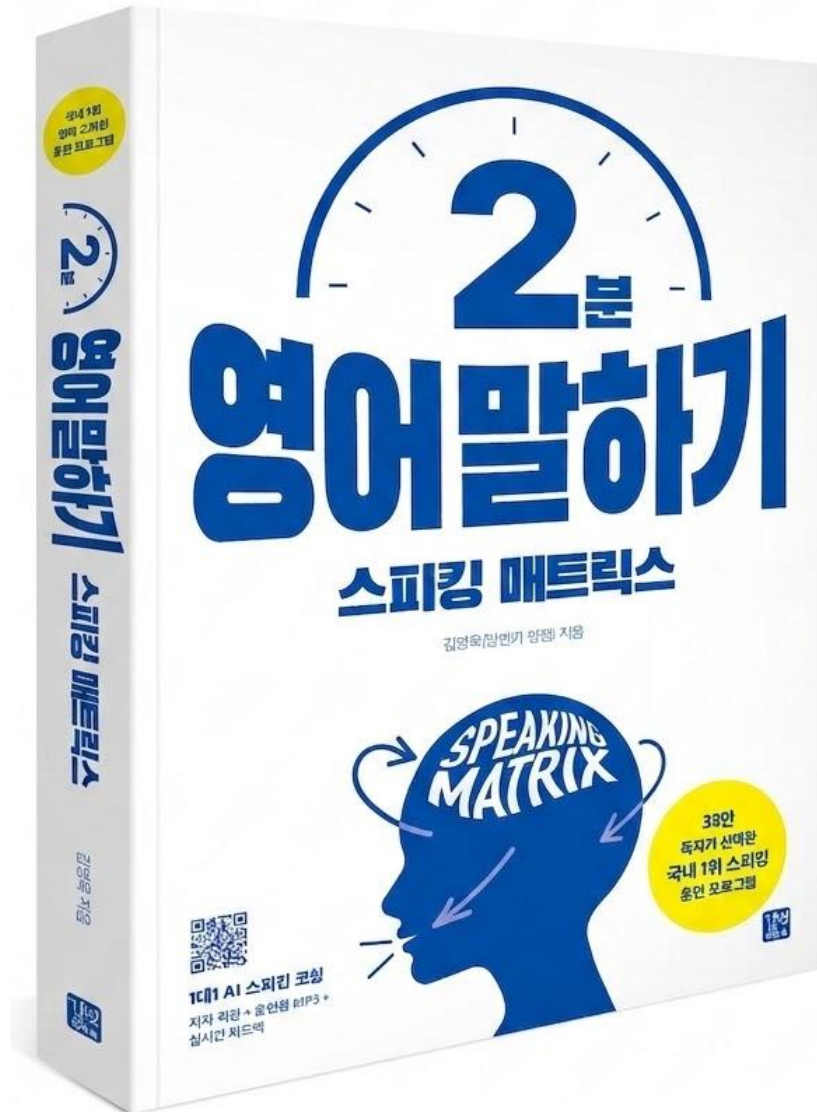


국내 1위! 영어 스피킹 훈련 프로그램

스피킹 매트릭스 : 2분 영어 말하기



지은이 김영욱(달변가 영쌤) / 부록 1:1 AI 스피킹 코칭(QR), 훈련용 MP3, 저자 음성 강의
값 20,000원 / 323 페이지 /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 판형 148*210(국판) / ISBN 979-11-407-1941-9 04740

길벗이지톡 www.gilbut.co.kr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7-9 3층 | 전화 (02)332-0931 | 팩스 (02)322-6766

※ 이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임명진(02-330-9845)에게 연락해 주세요.

국내도서 > 외국어 > 영어회화/청취 > 영어회화 > 기초회화

국내도서 > 국어 외국어 사전 > 영어 > 영어입문서/학습법

국내도서 > 국어 외국어 사전 > 영어 > 영어회화/생활영어

국내도서 > 외국어 > 영어회화 > 생활영어

국내도서 > 외국어 > 영어듣기/말하기

All NEW 전면개정판

13년 동안 35만 독자가 선택한 국내 1위 영어 스피킹 훈련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내 경험은 왜 영어로 말하면 노잼일까?

똑똑 끊기는 단문 영어를 생생한 2분 에피소드로 바꾸는 30일 스피킹 훈련

Q.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 하고 싶은 말: 늦잠에 택시를 잡아탔지만 도로가 막혀 중간에 내리고, 공유자전거로 갈아타 회의 직전에 겨우 도착한 이야기
- 막상 영어로는: “Traffic was bad. I took a bike.” (그래서 끝?)

Q. 주말에 뭐 했어요?

- 하고 싶은 말: 번아웃이 온 주말, 약속을 취소하고 달리러 나갔다가 골목의 작은 카페를 발견한 이야기
- 막상 영어로는: “I went running. Then I went to a cafe.” (사연 생략)

Q.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

- 하고 싶은 말: 한참 기다린 배달 음식이 잘못 와 속상했지만, 서비스 디저트 덕분에 기분이 풀린 뜻밖의 반전 이야기
- 막상 영어로는: “My order was wrong. But the dessert was good.” (반전 어땠지?)

※ 위 내용은 《2분 영어 말하기》의 수록 주제와 표현을 바탕으로 일상 대화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련 학습: Day 01, 02, 16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단문 한두 개만 던지고 입을 다물게 된다. 문장은 말할 수 있어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까지 영어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다. 사건의 배경과 이유, 선택과 결과를 연결해 하나의 완성된 에피소드로 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첫 출간 이후 13년 동안 35만 독자의 영어 입을 열어 온 국내 1위 스피킹 훈련서 《스피킹 매트릭스》가 6년 만에 전면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외우는 영어 대신 직접 입 밖으로 꺼내는 시간을 늘려 온 이 스테디셀러는 기존의 훈련 원리는 지키되, 내용과 학습 환경은 오늘에 맞게 완전히 새로 짰다.

49만 구독자와 소통하는 영어 강사 김영욱(달변가 영쌤)이 새 저자로 합류해 지금 성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와 표현을 골랐고, 말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1:1 AI 스피킹 코칭까지 더했다.

《2분 영어 말하기》는 짧은 문장에 ‘왜’와 ‘그래서’를 붙이는 책이다. 무엇을 했는지만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이 벌어진 배경과 선택한 이유, 행동과 결과, 당시의 감정까지 연결해 하나의 경험으로 말한다. INPUT에서 이야기의 재료와 전개 방식을 익히고, 같은 날 OUTPUT에서 이를 2분 에피소드로 완성하는 훈련을 30일간 반복한다.

소재도 오늘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꼬여 버린 출근길, 번아웃을 털어낸 주말, 뜻밖의 반전으로 끝난 배달 사고처럼 누구나 겪을 법한 순간에 배경과 이유, 선택과 결과를 더해 시작과 결말이 있는 영어 이야기로 만든다. 1분의 기본 문장은 2분에서 배경과 결과가 있는 이야기로 자라고, 2분에서 완성한 에피소드는 3분에서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

저자 음성 강의와 1:1 AI 스피킹 코칭, 30일 학습 트래커 PDF도 제공한다. 음성 강의는 순차 공개되며, AI 코칭에서는 훈련과 함께 직접 말한 문장의 단어별 스피킹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스피킹 매트릭스 3단계 훈련 ★

1분 영어 말하기(눈뭉치 만들기)

난이도 초급 / OPIc IM2~IM3 / 토익 스피킹 110~130점 수준

스피킹에 필요한 기본 표현을 익히는 초급 단계다. 아침 루틴, 출퇴근, 배달 주문, 감정과 취향처럼 자주 쓰는 말을 필요한 순간 바로 꺼내며, 자기소개와 나의 일상을 영어로 말하는 힘을 만든다. “주말에 뭐 했어?”라는 질문에 ‘친구랑 서교동에 가서 새로 생긴 맛집에 다녀왔어.’ 같은 문장을 1분간 꺼낼 수 있다.

2분 영어 말하기(눈덩이 굴리기)

난이도 초중급 / OPIc IH / 토익 스피킹 140~150점 수준

기본 표현과 연결어를 활용해 에피소드로 확장하는 초중급 단계다. 늦잠으로 꼬인 아침, 계획이 달라진 주말, 첫 도전, 실수 수습 등의 경험에 상황과 배경, 이유와 결과, 시간의 흐름과 감정을 더해 시작과 결말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다.

3분 영어 말하기(눈사람 머리 완성)

난이도 중급 / OPIc AL / 토익 스피킹 160~180점 수준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중급 단계다. 재택근무의 장단점, 번아웃과 휴식, 디지털 디톡스, AI 시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입장, 근거, 반론, 결론을 갖추어 나만의 생각과 관점을 전할 수 있다.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 단문 위주의 짧은 단답형 표현에서 벗어나 하나의 에피소드를 영어로 길게 풀어내고 싶은 학습자
- 오픽(OPIc IH)이나 토익 스피킹 등에서 돌발 경험 질문(Past Experience)에 매끄럽게 답하고 싶은 시험 준비생
- 사건의 전개, 이유, 결과, 당시의 느낌을 연결 표현(because, so, after 등)으로 자연스럽게 잇고 싶은 학습자
- 1분 말하기를 넘어 자신의 경험과 해프닝을 2분 이상 끊김 없이 전달하고 싶은 초중급 스피킹 학습자
- 단편적인 영작을 넘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스토리가 있는 말을 꺼내고 싶은 성인 학습자

★ 추천하는 글 ★

“1분이 쌓이면 영어가 이어집니다” — 이수호

우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모국어처럼 말하기를 스스로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단 1분을 말할 수 있다면 이미 큰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영쌤의 스피킹 매트릭스는 그 1분이 2분, 3분으로 이어지며 영어로 대화가 계속되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 이세별

유익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영쌤과 이 책을 통해 경험했어요. 단순히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영어를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배우고픈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 노영훈

머릿속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말이 안 되면 어찌지' 하던 두려움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가벼운 주제부터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단계를 높여가며 연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영어를 꺼내는 힘” — 김보라

언어를 잘하게 되는 방법은 결국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하려면 재미있어야 합니다. 스피킹 매트릭스에는 두려움 없이, 재미있게 영어를 입 밖으로 꺼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기의 시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몰토크부터 나만의 생각까지” — 박민지

가벼운 스몰토크부터 한국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길고 복잡한 생각까지,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추천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어 말하기였는데, 어느 순간 말을 꺼내고 이어가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쌓이고 영어가 길어졌어요!” — 장희정

문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도 열지 못하던 제가 꾸준히 훈련하며 달라졌습니다. 짧은 문장부터 말하기 시작하자 영어 앞에서 머뭇거리던 습관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마디를 꺼내고 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일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영어가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 — 천유리

처음에는 영어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영어가 조금씩 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쌤은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분께 '공부'가 아닌 '습관'의 시작이 되리라 믿어요.

★ 이 책의 구성 ★

《2분 영어 말하기》는 이야기의 재료와 흐름을 익히는 INPUT과, 이를 활용해 2분 동안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OUTPUT으로 구성됩니다.

INPUT 에피소드 학습

하나의 경험을 배경과 이유, 행동과 결과가 있는 에피소드로 확장합니다. 소리로 먼저 듣고, 흐름을 확인한 뒤, 우리말과 힌트만 보고 영어로 직접 말하는 4단계 훈련입니다. 경험을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이어 말하는 것이 인풋의 목표입니다.

STEP 1 소리 듣기

먼저 음원을 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떠올리며 소리에 집중하세요.

STEP 2 흐름 파악하기

영어 문장과 우리말 뜻을 확인합니다. 별표(*)를 기준으로 의미 단위를 파악하고, 이유·결과·순서 등 문장이 이어지는 흐름도 함께 익히세요.

STEP 3 따라 말하기

처음에는 음원을 듣고 한 문장씩 끊어 말합니다. 익숙해지면 이야기의 흐름을 살려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STEP 4 혼자 말하기

우리말과 힌트만 보고 에피소드를 영어로 직접 말합니다. 막히면 다시 확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 말해보세요.

스피킹 코칭

INPUT 주요 표현의 문법과 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 더 깊이 있는 스피킹 학습이 가능합니다.

OUTPUT 실전 스피킹 훈련

INPUT에서 익힌 표현과 이야기의 흐름을 활용해 2분 말하기를 완성합니다. 상황과 이유, 행동과 결과, 감정을 더하며 하나의 경험을 완결된 이야기로 확장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STEP 1 우리말 보면서 듣기

우리말을 보며 음원을 듣고, 전체 에피소드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각 문장 아래 핵심 표현도 함께 확인하세요.

STEP 2 한 문장씩 끊어 말하기

음원을 들으며 한 문장씩 따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듣고 따라 하다 점점 음원과 동시에 말하도록 해보세요. 영어 문장은 두 번씩 들려줍니다.

STEP 3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

빈칸 표현을 떠올리며 음원을 따라 말합니다. 막힌 부분은 정답을 확인한 뒤 처음부터 다시 이어 말하세요.

STEP 4 2분 동안 영어로 말하기

우리말만 보고 2분 안에 전체를 영어로 말합니다. 완벽하게 외우기보다 막히더라도 경험의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록

스피킹 훈련용 MP3 파일

원어민 성우가 실전 말하기 속도로 녹음한 모든 예문을 QR코드 스캔 및 MP3 파일 다운로드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스피킹 전문 강사의 해설 강의

스피킹 전문 강사이자 구독자 49만 유튜버 달변가 영쌤이 스피킹 훈련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1:1 AI 스피킹 코칭

Day별 QR코드로 접속해 문장을 말하면 단어별 스피킹 정확도를 바로 확인하고 다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 활용 순서>

INPUT은 ① 소리 듣기 ② 우리말과 단어를 보며 흐름 파악하기 ③ 따라 말하기 ④ 우리말과 힌트만 보고 혼자 말하기로 진행한다.

OUTPUT은 ① 우리말을 보며 전체 흐름 듣기 ② 한 문장씩 끊어 말하기 ③ 음원을 들으며 빈칸 표현을 떠올려 따라 말하기 ④ 우리말만 보고 2분 동안 끝까지 말하기로 이어진다.

AI 스피킹 코칭은 ① QR코드 스캔 ② 최초 1회 교재 인증 ③ MP3 듣기 또는 AI 코칭 선택 ④ 말한 결과를 확인하고 목표 점수까지 재도전하는 순서로 이용한다.

★ 차례 ★

INPUT

Day 01 Because | 이유 설명하기

Day 02 Results | 결과 말하기

Day 03 Before & After | 전후 비교하기

Day 04 Steps | 순서대로 말하기

Day 05 Choices | 선택과 결정 말하기

Day 06 Places | 장소 묘사하기

Day 07 People | 사람 소개하기

Day 08 Tools | 도구와 방법 말하기

Day 09 Comparisons | 비교하기

Day 10 Moments | 순간 묘사하기

Day 11 Morning Stories | 아침 이야기

Day 12 On the Way | 이동 중 이야기

Day 13 Cafe Time | 카페에서의 이야기

Day 14 Chores Day | 집안일 이야기

Day 15 Shopping Stories | 쇼핑 이야기

Day 16 Running Late | 지각 위기 이야기

Day 17 A Change in Plans | 계획 변경 이야기

Day 18 My Mistake | 실수 이야기

Day 19 Fixing Problems | 문제 해결 이야기

Day 20 Asking for Help | 도움 요청하기

Day 21 Making Decisions | 결정 이야기

Day 22 Updates | 진행 상황 말하기

Day 23 Issues | 위기 상황 말하기

Day 24 Apologies | 사과와 수습

Day 25 Wrap-up | 마무리 말하기

Day 26 Best Moments | 최고의 순간

Day 27 Tough Moments | 힘들었던 순간

Day 28 Lessons | 배운 점 말하기

Day 29 Changes | 변화 이야기

Day 30 Routines | 나만의 루틴 소개하기

스피킹 코칭

OUTPUT

Day 01 Weekend Reset | 번아웃을 멈춘 주말

Day 02 A Lucky Turn | 실수 끝에 찾은 반전

Day 03 After the Change | 달라진 아침과 공간

Day 04 Getting Ready | 친구를 맞이하는 순서

Day 05 Choosing Myself | 퇴사 대신 나를 지킨 선택

Day 06 My Secret Spot | 나만의 비밀 아지트

Day 07 My Support Crew | 나를 돕는 든든한 사람들

Day 08 My Safety Net | 실수를 줄여주는 도구들

Day 09 Peace in Difference | 취향 차이가 만든 평화

Day 10 Rainy Magic | 빗소리가 만든 순간

Day 11 Ten-Minute Shift | 아침을 바꾼 10분

Day 12 On the Road | 길 위에서 생긴 일

Day 13 Cafe Recharge | 카페에서 일하고 쉬는 법

Day 14 Chores Done | 미루던 집안일 끝내기

Day 15 Cart Before Click | 결제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Day 16 Bike Rescue | 지각 위기를 넘긴 자전거 출근

Day 17 A Flexible Day | 꼬인 하루를 풀어낸 선택

Day 18 Fixing My Mistake |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Day 19 Problem Solved | 문제를 해결한 과정

Day 20 Asking for Help |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 구하기

Day 21 Time to Start Over | 새 출발을 결심한 순간

Day 22 Project Rhythm | 멈추지 않는 프로젝트 리듬

Day 23 Crisis Moment |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기

Day 24 Making It Right | 꼬인 실수 바로잡기

Day 25 Clear Next Steps | 명쾌한 정리와 다음 단계

Day 26 The Payoff |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Day 27 A Tougher Day | 예상보다 힘들었던 하루

Day 28 The Real Lesson | 실수에서 배운 진짜 교훈

Day 29 Small Changes |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일상

Day 30 My Simple Ritual | 나를 지키는 가장 쉬운 루틴

스크립트 정답과 표현 정리

★ 저자 소개 ★

김영옥(달변가 영쌤)

“달마다 변화를 가져다주는 달변가 영쌤입니다”라는 소개로 영어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4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달변가 영쌤〉과 자체 커리큘럼 〈영쌤 영어회화〉를 운영하며 실전 회화 교육을 이끌어왔다.

그 여정의 출발점은 남달랐다. 영어에 자신도, 흥미도 없었지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스몰다섯, 캐나다행을 결심했다. 문법 위주의 공부는 제자리걸음이었지만, Zara·Chipotle 등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현장에서 매 순간 영어를 직접 꺼내 써야 했던 경험이 비로소 실력을 끌어올렸다. 캐나다에서 TESOL 과정을 수료하며, 영어는 눈으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소리 내어 반복하며 몸으로 익히는 기술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경험은 지금까지도 그의 교수법을 관통하는 신념이 되었다 —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믿음이다.

귀국 후에는 딱딱한 문법 용어 대신, 누구나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미묘한 어감과 문화적 맥락을 함께 짚어내는 동시에, 배운 표현을 그 자리에서 직접 발화하게 하는 훈련법을 고수해왔다.

지금도 이 일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며, 머뭇거리던 학생이 마침내 영어로 말문을 여는 순간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저서로 《스피킹 매트릭스: 1분/ 2분/3분 영어 말하기》(전 3권, 길벗이지톡), 《달변가 영쌤의 친절한 구동사》(다락원), 《스피킹 코치 영어회화 패턴 100》(PAGODA Books), 《영어로 스몰토크, 이렇게나 쉬웠다니》(모티브) 등이 있다.